

'22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0.20	회의실	6/12	4	1	11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영신·노동일·송경용·오광호·조경완·최정욱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행석(콘텐츠본부장), 윤근수(시사보도본부장), 권영수(경영심의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4	0	2	6	0	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6	0	0	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교양	<광주MBC 보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기후위기 관련 소개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관심을 바람	다큐멘터리 <산불 기후의 위 기>(11.3) 자체 편성 조치	'22.10 .
"	<본방을 보자> 줌인노래방, 음악전공 이나 준프로급 출연자가 나와 코너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음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출연자 사전점검 등 제작 시 의 견 반영 권고 조치(11.1)	"
"	<본방을 보자> 곱창 식당 관련, 어느 지역인지 정보 없고, 우리 지역의 맛 집 소개 바람	<본방을 보자> 담양(11.10), 말바우 시장, 양동시장(11.2), 광주김치 (10.26) 등 우리 지역 맛 소개 방송 조치	"
"	<본방을 보자> 기아타이거즈 경기 현 장 연결 중 잘 들리지 않고 발음 정확 하지 않아 불편했음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사전점검 등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1.1)	"
기타	유튜브 뉴스 콘텐츠 재생 중 끊기는 현상이 있음	업로드 파일 점검 조치(11.1)	"
"	텔레비전에 '광주문화방송' 한글 사명 자막 표기, 글자 수가 많고 익숙하지 않아 부정 의견도 있음	홈페이지 통한 설문조사 진행 (10.23) 등 의견수렴 조치	"
총 건수		6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교양	<광주MBC 보다> 광주프린지페 스티벌 기후위기 관련 소개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관심을 바람	지속적인 관심 두겠음	○		
"	<본방을 보자> 줌인노래방, 음악전공이나 준프로급 출연자가 나와 코너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음	건전한 아마추어의 경쟁이 되도록 신청자들의 선정에 관심 두겠음	○		
"	<본방을 보자> 곱창 식당 관련, 어느 지역인지 정보 없고, 우리 지역의 맛집 소개 바람	<본방을 보자>에서 우리 지역의 맛집 정보는 <월간 본슐랭>에서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음. 곱창 식당은 다른 지역에서 제작한 코너 물임	○		
"	<본방을 보자> 기아타이거즈 경기 현장 연결 중 잘 들리지 않고 발음 정확하지 않아 불편했음	LTE 연결 시 비디오, 오디오 자세히 확인하겠음	○		
기타	유튜브 뉴스 콘텐츠 재생 중 끊기는 현상이 있음	업로드 파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음	○		
"	텔레비전에 '광주문화방송' 한글 사명 자막 표기, 글자 수가 많고 익숙하지 않아 부정 의견도 있음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2년 10월)

일시	2022. 10. 20. 목. 오후 5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영신, 노동일, 송경용, 오광호, 조경완, 최정욱(6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권영수 경영심의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2022년 10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먼저 사장님 말씀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 김낙곤 사장 : -반갑다. 오늘은 저희가 담양군과 공동으로 추진한 담양LP음악충전소를 개관하는 날이다. 담양의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
- 김영신 위원 : -광주MBC가 한글날이 들어 있는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한 달간 화면 우측 상단에 ‘광주MBC’ 표기가 아닌 ‘광주문화방송’으로 사명을 표기하였다. 익숙하던 영어 표기가 아니라 한글로 ‘광주문화방송’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을 보니 일단 색다름에 기분이 좋았고, 한글이라는 점에 자긍심과 뿌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단아하고 차분하게 정돈된 한글을 보니 너무 예뻐다. 타 방송사처럼 한글날 단 하루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 점도 좋았다. 이와 같은 한글 사명 표기를 10월 한 달만 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저와 같이 매우 참신하고 좋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광주MBC’에 익숙한 시청자분들은 일단 화면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시선을 끄니 프로그램에 집중이 안 된다는 의견이나 변경된 한글 사명의 글자 수가 더 많아져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불편하다는 의견 등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일단 한 달이라도 한글사명 표기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매우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최적의 사명 표기, 그것이 한글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송경용 위원 : -<본방을 보자> 10월엔 광주! 둘이서 오붓하게 즐기는 가을 광주 여행 코스 의견이다. 첫 번째 장소인 ‘우치공원 동물원’은 가보지 못하였던 장소였는데, 영상에서 동물원의 내부나 입장료, 동물 종류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다음번에 방문할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중간에 동물원의 관리자분의 추가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으니 좋았고, ‘선선하니 낮잠자기 딱이거’라는 부분의 재미있는 자막이나 다양한 폰트 활용 덕분에 영상을 더욱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다. 전에 양림동에서 카페만 한 번 방문하였었는데 분위기 있는 술집들이 최근에 생겼다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 새로 알게 되었고 다음에 꼭 방문하고 싶다고 느꼈다. 전체적인 진행이 코스를 직접 방문하여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니 저도 함께 놀러 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출연자분들이 활기차고 재미있게 대화를 이어가셔서 지루할 틈 없이 시청했다. 10월 13일은 광주 충장축제와 더불어 광주 기아타이거즈 팀이 4년 만에 가을야구에 진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영상 초반 4분대에 전시와 축제 등 여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주었는데 기간이나 장소, 내용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알려주어 좋았다. 가을야구에 진출한 기아타이거즈 팀의 전망이나 관전 포인트 등을 현장의 기자와 연결하여 의견을 들었는데 잘 들리지 않았고 현장 연결이라 발음이 뭉개져서 들려 불편했다. 간결한 자막 등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카카오톡 내용으로 감상평을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내리며 중간에 멈춤 내림을 반복하다 보니 너무 잘 읽혔다. 문장들이 빠르게 내려가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시청자를 배려해주는 것이 좋았다.
- 10월 15일 “신기술 어디까지 왔나”.. e-모빌리티 엑스포라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600kg 이하 초소형 전기차가 친환경으로 차량 가격의 절반 가격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차량이 작고 1,000원에 80km를 이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주차나 연료 비용이 저렴해 농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영상의 취지도 좋고 농촌 주민들의 큰 이목을 끌 수 있어 좋았지만 2분 13초라는 짧은 동영상 재생 중 1분 20초쯤에 화면이 끊기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끊기지 않는 원활한 재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 오광호 위원 : -<광주MBC 보다> 토요일 토요일은 축제다! 2022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편을 관심 있게 시청했다. 평소 충장로에서 어떤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시민, 예술, 기후위기’를 키워드로 다양한 체험행사 및 공연이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축제의 키워드 중 ‘기후위기’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즐기지만 하는 축제가 아닌, 기후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 같다. ‘줍기 퍼포먼스’를 통해 직접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고, 이벤트를 통해 선물도 받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이에 관해 관심을 바란다.

-<본방을 보자>에서 KIA 타이거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코너였다. 김여울 기자의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말이 끊기는 등 잡음이 많이 들려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막이 같이 표현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가을엔 밖에서 놀자’에서는 가을에 광주에서 즐기기 좋은 곳들을 다양하게 코스로 소개해주어 좋았다. 무료입장이 가능한 패밀리랜드의 우치동물원부터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의 가을야구, 마지막으로 양림동에서의 야장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줌으로써 광주로 여행을 온 분들이나 광주 곳곳을 잘 몰랐던 분들에게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광주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길 바란다.

- 노동일 위원 : -담양 LP음악충전소의 개관을 축하한다. 담양 발전에 기여하고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 최정욱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수요일마다 월간본술랭 방송 후 지역 맛집이나 다른 지역 맛집에 관한 소개를 하곤 한다. 10월 12일에는 ‘업자들의 맛집’이라는 소개와 함께 소곱창 집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첫째, 소개를 맡은 업자는 울산에서 국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광주 전남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맛집이 소곱창 집으로 정확한 지역을 말해주지 않았다. 울산지역인지, 아니면 경상도 어느 지역 맛집인지 안내가 없었다. 둘째, 그 소곱창 집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본방을 보자>에서 방송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심이 든다. 광주에도 유명한 소곱창 집이 많은데 광주전남지역의 업자를 소개하고 업자가 생각하는 광주·전남 지역의 맛집을 소개했다면 긍정적이었을 거로 생각한다.

-목요일마다 줌인 노래방을 방송한다. 처음 음악대결은 주변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추어들의 노래 대결이라 친근했다. 어느 순간부터 음악전공을 하거나 준프로급 사람들이 나오거나, 다른 지역 지원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주위에 노래 좀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결하기보다는 이미 전문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 처음 ‘줌인 노래방’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원자에 대한 자격을 한번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기후위기 등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방송하겠다. 줌인 노래방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신청자 선정 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본방을 보자>에서 우리 지역의 맛집 정보는 <월간 본술랭>에서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곱창 식당은 다른 지역에서 제작한 코너물이었다. 우리 지역의 맛집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기아타이거즈 경기 현장에서는 시청에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하다. LTE 연결할 때에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유튜브에 뉴스를 올릴 때는 파일의 이상 여부를 잘 확인하도록 하겠다.
- 김낙곤 사장 : -한글로 광주문화방송을 표기하는 것은 우리 글과 문화에 대한 저희의 관심이고, 확산해가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오늘도 좋은 의견 감사드린다. 11월 시청자위원회는 세 번째 수요일인 16일이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란다. 끝.